전원생활

“우도농악 소리 그리워 50년만에 귀향 했죠”

광주서 교편 퇴직 후 2001년 고향으로 내려와 ‘둥굴마을사’ 편찬 출향인사에 무료로 배포 마을회장 맡아 민속유물관 건립 등 봉사활동

■ 장성 삼서면 둥굴마을 임수동·박금자 부부

장성군 삼서면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5㎞ 떨어진 곳. 광주~사창간 815번 지방도로를 타고 평림천을 지나면 둥그런 원을 그리듯 들어선 마을이 있다. ‘둥그렇다’는 뜻에서 ‘둥굴’마을이라고 하고 두동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이 마을에서 7년째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 임수동(71)·박금자(여·69)씨 부부 집은 마을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잔디가 깔린 정원을 빼면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할 만큼 마을 집 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농촌에 있는 전원주택들이 보통 마을속에 자리잡기 보다 동떨어진 곳에 있거나 화려한 건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임씨 부부의 전원주택이 마을속에 조화롭게 자리잡은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다. 50여년만에 고향으로 되돌아 왔지만 편안한 전원생활을 즐기기보다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중학교 졸업하고 광주로 유학가 대학을 졸업한후 4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고 고향에 되돌아 왔으니 50여년만의 귀향입니다”

임씨는 광주예술고 교장을 마지막으로 2000년 교편을 놓고 이듬해 이곳에 집을 지어 내려왔다. 도시생활에 싫증을 느껴 전원생활을 꿈꿔오다 퇴직후 고향으로 발길을 잡은 것은 왠지 모를 ‘이끌림’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수도 있었지만 어릴적 들었던 호남 우도농악 소리가 고향의 소리처럼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임씨는 우도농악 소리가 귓전에 맴돌아 결국 고향에 자리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광주에 살면서 그림 그릴때 찾는 별장용으로 계획했지만 자주 들르다보니 정이 들어 아예 살게 됐다. 임씨는 2002년 광주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본격적으로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마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2003년, 마을 역사인 ‘둥굴 마을사’를 만들어 200여명의 출향인사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으며 평림천에 있는 다리를 재가설하는데 앞장섰다. 2005년에는 마을회장을 맡아 마을회관을 새로 지었다.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장성군으로부터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받아 2005년부터 3년동안 둥굴마을을 살기좋은 마을로 탈바꿈 시켰다는 것이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민속유물관을 건립하는 등 마을 전체를 공원처럼 만들어 주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50여년만에 돌아온 사람의 말을 주민들이 잘 따라 줬느냐”는 질문에 임씨는 “광주에 있을때도 가끔씩 들렀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어색함은 없었다”며 “내 돈 들여가며 마을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주민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교직생활중 두번의 전시회를 가진 임씨는 “이제부터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남편을 보면서 이웃들과 어울려 함께 호흡하며 보다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전원생활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렇다고 자녀와 손주 등 가족들과 즐기는 전원생활의 맛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귀띔해 줬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임수동(오른쪽)·박금자씨 부부가 후배 교사들이 세워준 임씨의 흉상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뒤로 보이는 전원주택이 임씨의 호를 따 지은 ‘낭송재(郎松齋)’다.

호남우도농악 창시자 최화집 태어난 곳 농악악기 등 329점 전시 민속유물관 볼 만

■ 장성 둥굴마을은

둥굴마을은 마을 사람들이 일제잔제를 없애기 위해 찾아낸 옛 지명이다. 행정구역상은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1구, 두동마을이다.

둥굴마을은 호남우도농악의 창시자 가운데 한명인 최화집(1878~1959)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상쇠명인인 최화집이 활동한 곳 답게 이 마을에는 우도농악의 맥을 잇는 전수자들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의 가장 큰 볼거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민속유물관. 유물관은 농촌건강마을 사업에 선정돼 군비 지원을 받아 지었지만 전시품 329점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거나 수집한 것이다.

우도농악 악기부터 다양한 생활민속품 등을 볼수 있어 마을 유물관 규모로는 상당한 수준이다. 50년대 마을 청년들이 만들어 활동한 연극공연단까지 마을의 역사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변에는 전남에서 3번째로 크고 붕어낚시터로 유명한 수양저수지(함동저수지)와 상무대가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둥굴마을 민속유물관에는 주민들이 모은 유물 329점이 전시돼 있다.